

2020년 5월 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밸류 부담 부각으로 장 마감 직전 매물 출회 대형 기술주 상승 Vs. 금융주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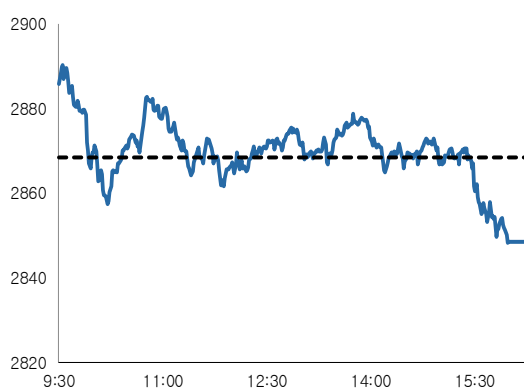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종목별 차별화 지속

미 증시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속 상승 출발 했으나, 고용 지표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우려 여파로 하락 전환. 이후 대형 기술주가 개별 호재성 재료와 코로나 이후 실적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이 상승하는 등 종목 장세를 보인 점이 특징. 이런 가운데 장 마감 직전 IT 버블 이후 이익 대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거래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매물 출회되며 상승분 반납(다우 -0.91%, 나스닥 +0.51%, S&P500 -0.70%, 러셀 2000 -0.82%)

4 월 ADP 민간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수는 2,023 만 6 천건이 감소해 사상 최악의 결과를 내놓음. 특히 서비스업이 1,600 만 7 천건이 감소했는데 레저 및 호텔업종이 860.7 만건, 무역, 운송 등이 344 만명, 교육, 보건이 97.1 만건 감소해 전체적으로 경제 섯다운에 의한 결과가 극명하게 피해를 입힌 업종의 고용 감소폭이 컸음. 이러한 고용 결과를 감안 경제 재개가 확대 되고 소비가 증가하면 서비스 부문 회복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악의 상황으로의 확산은 제한. 실제 오늘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경제가 3 분기 전환 분기가 될 것이며 올해 말에 실업률은 한 자리수로 떨어질 것” 이라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이런 가운데 금융주는 S&P 가 코로나로 인해 부동산 및 소비자 대출에 노출이 많은 13 개 미국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신용 리스크가 유입되며 매물이 지속. 반면, 기술주는 코로나로 인한 클라우드 서비스 급증 등에 힘입어 상승하는 등 차별화가 이어짐. 특히 대규모 유동성과 경제 재개 기대, 낮은 금리를 빌미로 한 주식투자 등이 이어지고 있어 기술주에 대한 쏠림 현상을 보이며 나스닥 강세가 컸음. 그러나 장 마감 앞두고 전일 이어 오늘도 매물이 급격하게 유입되었음. 미 증시가 IT 버블 이후 어느 시점 보다 기업이익 대비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으로 추정(S&P500 12m Fwd PER 22 배, 10y 평균 15 배)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1.76	1,928.76	홍콩	항셱	24,137.48	+1.13	
KOSDAQ	+2.57	658.40	영국		5,853.76	+0.07	
DOW	-0.91	23,664.64	독일		10,606.20	-1.15	
NASDAQ	+0.51	8,854.39	프랑스		4,433.38	-1.11	
S&P 500	-0.70	2,848.42	스페인		6,671.70	-1.13	
상하이종합	+0.63	2,878.14	그리스		600.67	-1.59	
일본		19,619.35	휴장	이탈리아	17,159.31	-1.3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8%

S&P가 코로나 19로 상업용 부동산과 소비자 대출 부문에 노출이 큰 13개 은행들에 대해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 했다. 특히 미국 은행들의 장기 호황을 끝냈다고 주장해 알리 파이낸셜(-5.15%), 디스커버 파이낸셜(-4.77%), CIT그룹(-6.67%), 시노버스 파이낸셜(-5.73%) 등 13개 은행 모두 3~6% 내외 하락했다. 여기에 소비자 대출 위주의 씨티그룹(-2.28%)과 부동산 대출 위주의 웰스파고(-2.70%)는 물론 JP모건(-1.88%) 등 여타 대형 은행주도 하락이 이어졌다.

한편, 길리어드 사이언스(-2.11%)는 캐나다 대형 은행인 CIBC가 보유중인 주식 중 반절을 매각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반면 CIBC는 MS(+0.98%)와 애플(+1.03%)의 지분을 늘렸다. MS는 여기에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회사를 1억 6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뉴질랜드에 데이터 센터 구축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아마존(+1.44%)은 물론 NVIDIA(+1.38%), 마이크론(+1.48%) 등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그 외 비온드 미트(+26.01%)는 손실 전망을 뒤로하고 흑자에 성공하자 급등 했으며, GM(+2.96%)은 픽업트럭 매출이 27% 급증하며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56%	대형 가치주 ETF(IVE)	-1.57%
에너지섹터 ETF(OIH)	-4.42%	중형 가치주 ETF(IWS)	-1.68%
소매업체 ETF(XRT)	+0.28%	소형 가치주 ETF(IWN)	-2.06%
금융섹터 ETF(XLF)	-2.16%	대형 성장주 ETF(VUG)	+0.22%
기술섹터 ETF(XLK)	+0.78%	중형 성장주 ETF(IWP)	+0.3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26%	소형 성장주 ETF(IWO)	+0.22%
인터넷업체 ETF(FDN)	+0.77%	배당주 ETF(DVY)	-2.30%
리츠업체 ETF(XLRE)	-1.8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81%
주택건설업체 ETF(XHB)	-0.3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4%
바이오섹터 ETF(IBB)	+0.02%	미국 국채 ETF(IEF)	-0.37%
헬스케어 ETF(XLV)	-0.99%	하이일드 ETF(JNK)	-0.38%
곡물 ETF(DBA)	0.00%	물가연동채 ETF(TIP)	-0.49%
반도체 ETF(SMH)	+1.17%	Long/short ETF(BTAL)	+0.1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75.67	-2.63%	-6.96%	+12.11%
소재	315.85	-1.82%	-6.14%	+7.00%
산업재	514.31	-1.37%	-7.11%	+1.21%
경기소비재	924.10	+0.31%	-2.94%	+12.51%
필수소비재	584.82	-1.10%	-3.24%	+0.09%
헬스케어	1,151.78	-0.98%	-1.32%	+9.12%
금융	353.83	-2.31%	-8.99%	+0.08%
IT	1,617.93	+0.71%	+0.12%	+10.90%
커뮤니케이션	168.89	-0.40%	-1.01%	+9.31%
유틸리티	278.26	-3.51%	-6.56%	-0.68%
부동산	201.26	-1.84%	-5.07%	+3.0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수급 부담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6% MSCI 신흥 지수 ETF 는 0.31% 하락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28.6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경기 침체 및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로 매물 출회 되기도 했으나 중국의 노동절 연휴 소비 증가를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코로나 이후에 대한 기대로 반도체 및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여 나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간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특히 미 증시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자국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화웨이와의 기술 표준 협력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점은 우호적이다.

그렇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있다며 중국 정부와 진정한 협력은 없다고 언급 하는 등 마찰이 지속되고 있어 미-중 무역분쟁 부담은 이어갔다. 더불어 패파 성향의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경제 반등 자신감은 있으나 그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하는 등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미국 주식들의 높은 밸류에이션 우려가 부각되자 장 마감 앞두고 매물이 출회된 점도 부정적이다. 이는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이 높아 한국 증시는 부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사상 최악 기록

4 월 미국 ADP 민간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는 2,023.6 만건이 감소했다. 전월 수치도 2.7 만건 감소에서 14.9 만건 감소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3 월 유로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1.25 감소해 지난달 발표치(mom +0.6%)를 크게 하회했다. 전반적으로 경제 섯다운에 따른 결과로 추정한다. 음식료 및 담배는 전월 대비 5.0% 증가하고 약품 등은 전월 대비 0.5% 감소에 그쳤으나 의류 등은 전월 대비 38.9% 급감했으며 컴퓨터 및 책 등은 16.4% 감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엔화 강세

국제유가는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전일 장 마감 이후 API가 지난 주 원유 재고가 88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장중 발표된 EIA의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는 459만 배럴 증가에 그쳐 낙폭이 축소된 점도 특징이다. 한편 가솔린 재고가 320만 배럴 감소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한편, 오클라호마 쿠싱지역 원유 재고는 207만 배럴 증가를 지속했다.

달러화는 최악의 고용지표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 엔화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유로존 소매판매가 급감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브라질 헤알화는 정치적인 마찰까지 유입되며 달러 대비 2% 넘게 약세를 보였고, 캐나다 달러와 노르웨이 크로네, 호주 달러 등 상품 환율은 물론 터키 리라, 멕시코 페소 등 신흥국 환율도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기 침체 우려 및 주가지수 상승분 반납 불구 장기물은 상승했다. 그러나 단기물은 이 영향으로 하락했다. 한편, 미 재무부가 1986년 이후 처음으로 2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채권 발행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체로 장중에는 상승을 유지했다. 더불어 단기물 위주의 재무부 차입이 장기물로 전환한다고 발표해 장기물 금리의 상승폭이 더 컸던 점도 특징이다.

금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중국 인프라 투자 기대로 일부는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49% 철근은 0.68%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23.99	-2.32	+59.30	Dollar Index	100.175	+0.47	+0.61
브렌트유	29.72	-4.04	+22.66	EUR/USD	1.0791	-0.45	-0.75
금	1,688.50	-1.29	-1.45	USD/JPY	106.13	-0.41	-0.52
은	15,015	-0.63	-1.96	GBP/USD	1.2339	-0.77	-1.04
알루미늄	1,479.50	-0.34	-1.76	USD/CHF	0.9755	+0.29	+0.18
전기동	5,198.00	+0.78	-1.20	AUD/USD	0.6399	-0.50	-2.41
아연	1,975.00	+2.97	+1.46	USD/CAD	1.4143	+0.67	+1.89
옥수수	314.25	-0.87	-0.08	USD/BRL	5.7159	+2.46	+3.87
밀	517.50	-0.62	+0.19	USD/CNH	7.1302	+0.11	+0.81
대두	832.50	-0.83	-0.60	USD/KRW	1222.10	-0.57	-1.08
커피	110.60	-0.05	+5.03	USD/KRW NDF 1M	1228.60	+0.54	+1.4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705	+4.27	+7.77	스페인	0.849	+7.30	+5.40
한국	1.515	+1.90	-2.00	포르투갈	0.968	+8.00	+7.20
일본	-0.019	0.00	+1.90	그리스	2.161	-0.30	+1.00
독일	-0.507	+7.10	-1.20	이탈리아	1.974	+11.00	+22.10